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11월 28일(금)
(음력 10월 9일)
Пятница
28 ноября 2025 г.
№ 46 (1216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2025년 11월 30일은 러시아에서 어머니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2025년 11월 30일은
어머니의 날

친애하는 사할린 및 쿠릴열도 여성 여러분!

어머니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성은 끝없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가득 찬 위대한 소명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매일매일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과 격려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통찰력은 아이들이 잠재력을 깨닫고, 담대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따뜻한 마음은 평생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세상은 더욱 따뜻하고 밝은 곳으로 변합니다.

훌륭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지혜, 인내심, 그리고 엄청난 정신적 힘을 필요로 하는 진정한 사명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즉 고향 땅에 대한 사랑, 연장자에 대한 존경, 창조적인 열망을 심어주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섬 지역의 어머니들이 최대한의 지원을 느끼고, 자라나는 세대가 어린 시절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고, 스포츠와 창의적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들, 건강과 행복,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항상 빛과 안락함,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감사와 성과로 다시 여러분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사할린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겨울 대비 일환으로 42킬로미터의 공공 인프라 망 교체

사할린주 정부 회의에서 난방 시즌을 사고 없이 넘기 위한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섬 지역은 필요한 연료 비축량을 확보했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모든 필수 중추 기반 시설과 도로 장비가 한파에 대비해 완비되었다.

"겨울은 우리 지역에 매우 중요한 시기다. 공공 인프라의 중단 없는 가동을 보장하고, 폭설에 대비하여 도로 장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 정부는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올해 주정부는 겨울철 공공 시설 준비를 위해 1500억 루블리를 배정했다. 업체들은 41.9킬로미터의 난방, 상수 및 하수 관망을 교체했다. 195개의 보일러실, 22개의 중앙 난방 지점, 71개의 취수 시설, 102개의 급수 펌프장 및 104개의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고체 및 액체 연료 비축량은 약 87,500톤으로 형성되었다.

지역 내 비상 상황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 131억 6천만 루블리 상당의 물자 자원 예비비가 조성되었다. 여기에는 온수 보일러, 펌프, 전기 모터, 파이프, 장비용 예비 부품, 건축 자재 등이 포함된다. 지방 자치 단체의 주택 공공 서비스 시설에는 133개의 비상 복구작업 팀이 구성되었으며, 1천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었다. 이들은 408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도로 분야에서는 다가오는 겨울 폭설에 대비하여 1,543대의 장비가 준비되었고, 결빙 방재 재료인 모래와 제설제 비축량을 확보했다. 36개 계약 업체가 지역 및 지방 자치 단체 주요 도로의 제설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쿠릴 열도와 본토 모두로 화물 및 여객 운송을 담당하는 홈스크와 코르사코브 항구에서 겨울 준비가 완료되었다. 기반 시설 유지를 위해 19대의 장비가 예비되어 있다. 계약 업체들은 완전한 준비 상태를 갖췄다. 철도 본선의 제설 작업을 위해 24대의 장비가 투입되었고 123곳의 눈 처리 장소가 지정되었다. 오늘날까지 위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사할린주 교통 및 도로부 장관 막심 조골레브가 보고했다.

겨울철에는 도로 조사를 위해 인공지능 영상 분석 시스템이 활용될 것이다. 이 차량 기반 시스템은 도로 표면의 눈과 얼음 형성을 기록할 것이다.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구독료는 **885,9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개정안, 외교통일위 소위 통과

2025년 5월 30일 양문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25일(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할린동포 사회는 오랫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1세대가 사망한 경우, 2~3세대가 영주 귀국을 원해도 법적 규제 등으로 영주귀국이 어렵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 통과 촉진을 위해 많은 사할린한인단체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KIN(지구촌동포연대) 최상구 대표가 법안 입법을 위해 국회와 사할린한인단체 간 주요 교량 역할을 한다.

사할린주, 15개 러시아 지역에 투자 유치 성공 비결 공유

전국 순위 79위에서 4위로 도약한 사할린주가 투자 환경 개선의 선도적 경험을 전국 15개 지역 대표들과 공유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된 '리더십 전략 - 지역적 돌파' 세션에서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2018년 제로에서 시작해 2025년 국가 투자 유치 4위(모스크바, 타타르스탄과 동급)를 달성한 비결을 소개했다.

2024년 기록적으로 3550억 루블리의 투자를 유치한 사할린은 개방적 정부-비즈니스 대화, 10일 내 해결되는 '비즈니스. 사할린.온라인' 플랫폼 등이 성과의 열쇠라고 밝혔다. 연방 전문가들은 사할린을 "리더십 실험실"로 평가하며 다른 지역에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특수 군사 작전 참전자 위한 단일 정보의 날 개최

11월 28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특수 군사 작전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위한 단일 정보의 날 '예진스트워(단결)'이 열린다. 사할린주 민속창작센터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취업 박람회, 직업 훈련 프로그램, 법률 및 세무 상담, 건강 검진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병사에게 보내는 편지' 마스터클래스, 여성 클럽 '베세드카' 운영도 마련된다. 이번 행사로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지역에서 제공하는 모든 지원 조치에 대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다.

아이들의 미소를 지키는 김 율리아 코르사코브 치과 진료소 소장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성입니다"

김 율리아(38세)는 코르사코브 구역 중앙병원의 치과 진료소 소장이다. 필자가 2022년 그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가 의사란 것조차 몰랐다. 당시 코르사코브 한인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모도 예쁘고 인간적으로도 예쁘게 보였다. 그 때는 많이 소통하지 못했지만 책임감이 높은 분으로 기억된다.

얼마전 코르사코브를 찾았다가 기회가 생겨 김 율리아 소장과 만날 수 있었다. 코르사코브에서 태어난 그는 사할린 동포 3세다. 학창시절 그의 꿈은 언제나 소아과 의사였다고 한다. 2004년, 코르사코브 제4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하바롭스크의 극동 국립 의대에 입학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입시를 준비하는 어느 순간, 방향이 치과로 바뀌었죠.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웃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꿈을 그대로 이룬 셈이죠. '어린이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으니까요."라고 말한다.

하바롭스크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인턴십과 소아 치과 전문의 연수를 마친 후, 2012년 고향인 코르사코브로 돌아왔다. 외지에서 더 넓은 기회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선택은 묵묵하고 당당했다. 고향이 너무 그리웠다고 한다.

코르사코브 중앙구역병원의 치과 진료소에 바로 취직하고 꿈꾸던 대로 소아치과 의사로 진료를 시작했다. 2019년에는 치과 진료소의 소장으로 임명되었고, 현재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을 포함해 약 50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며 책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소장이라는 직함보다 '의사 김 율리아'라는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그녀는 진료소를 운영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이지만, 그녀의 리더십 철학은 분명하다.

"조직과 관리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인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에 인간성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녀의 최근 프로젝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2024년 말부터 진료소는 코르사코브 교육국과 함께 '유아 치과 질환 예방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건강 수업'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치과 의사의 역할과 구강 위생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다. 수업은 놀이형식으로 진행한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치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올바른 양치질 습관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야 하거든요. 예방이 곧 건강 관리의 시작이죠. 우리는 건강한 차세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11월의 첫 주에도 코르사코브의 한 유치원에서 이 수업을 진행했고 앞으로 코르사코브 구역의 마을들에서 이 기획을 실행할 계획이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가득하다.

인간성에 대해 좀더 언급하자면

인터넷에서 본 한 어머니(자녀 3명)의 글이 생각난다. 김 율리아 소장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는 글이었다. 치아를 뽑아야 하는 8살 딸아이가 두려움에 울며 치료실에 거부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달램도 소용이 없었을 때, 마침 지나가던 김 소장님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아이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친근한 태도와 믿음직한 말 덕분에 아이는 마음을 열고 치료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이전에도 그분은 제 모든 아이들의 치아 치료를 맡아 주셨는데, 정말 훌륭한 의사이자 진짜 수준 높은 전문가이십니다. 아이들의 치아를 치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교사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의사로서의 자질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그분은 이 모든 면이 다 있습니다!"라고 어머니는 감동을 전했다.

김 율리아와 사회활동을 함께한 김 올레그 한 회사 대표도 역시 "그녀는 책임감과 따뜻한 마음의 화신입니다. 전문성과 인성을 모두 갖춘 그녀는 본받고 싶은 사람이며, 그녀와 알고 지내게 된 것은 큰 행운입니다"라고 필자에게 말하며 김 율리아 씨를 극찬했다.

아이들의 건강에 관해 말할 때 중요한 것은 의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마음씨다. 율리아 선생은 이 두 가지 장점이 모두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들 한다. 그분의 에너지와 배려심은 한때 코르사코브구역 한인디아스포라단체에서 홍보를 담당한 운영위원으로 활약할 때도 느꼈었다. 최근에는 여러 사정으로 이 활동을 그만두었지만 앞으로도 한인사회계에서 할 활동이 기대된다.

김 율리아에게 가족은 삶의 근간이자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저는 사할린 한인의 한 가정에서 세 번째 아이로 자랐습니다. 오빠 둘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통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족은 저에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엔 제가 자란 가족, 지금은 제가 만든 가족-딸과 아들, 남편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는 하늘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저는 어른이 되었지만, 부모님을 여의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2021년에, 어머니는 올해 초에… 두 분다 저의 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서 함께 살았거든요. 부모님은 제 인생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건축회사 대표, 시의회 의원, 코르사코브 한인단체 회장 등으로 코르사코브의 유명인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율리아에게는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분이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건 사교성,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 등이다. 어머니는 코르사코브한인들 사이에서 한식을 잘 하는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었다. 엄마 옆에서 요리를 보며, 율리아도 요리를 즐겁게 배웠다. 하지만 위암에 걸린 아버지가 장기간 다이어트에 맞는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 요리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졌다고 한다.

뿌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지께 이야기를 들어 좀 알고 있고, 한민족 문화에도 관심이 많다. 2021년 코르사코브구역 한인디아스포라협회의 회원이 되어 활동하며 한민족문화의 유지·보급에 많이 신경을 쓰기도 했다.

그는 "협회 활동은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시작했어요. 문화 유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 젊은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죠."라고 말한다.

그의 아들은 12살, 딸은 5살이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그들에게 내주지 못하지만 아이들 생각은 많이 한다. 많지 않은 자유시간이지만, 조용히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을 스스로 좋아하게 되었다. 요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건강관리도 신경 쓰기로 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고, 무엇보다도 인간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을 좋아한다는 김 율리아 소장은 정말 책임감과 따뜻한 마음의 화신이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모험의 땅' 공모전에서 사할린 여행 관련 영상 선두로 나서

'극동은 모험의 땅' 공모전 세 번째 시즌의 첫 6개월 동안 심사위원단은 506편의 영화를 검토했다. 이 사실을 프로젝트 발의자이자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네브가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공모전은 사람들이 극동과 북극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새로운 경로를 찾고, 주변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돕는다.

이 공모전은 사람들이 극동 자연의 위대함과 다양성을 직접 눈으로 보도록 영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가자들은 사할린, 야쿠치아, 연해주, 마가단주 및 기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 그들은 이미 알려진 경로를 따르거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그리고 이후 자신의 인상을 공유할 수 있다. 접수된 영화 덕분에 모든 시청자는 작가들과 함께 모험을 경험하고 진정한 여행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올해 가장 많은 영상은 사할린주 여행에 관한 것인데, 총 148편이다. 84개 작품으로 연해주가 2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하바롭스크 변경이 56편으로 이었다. 아무르주는 37편의 비디오영상이, 유대인 자치주에서는 32편이 출품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에는 자바이칼리예 변경, 캄차트카, 부랴치아, 마가단주 및 무르만스크주, 야쿠치아, 카렐리아, 그리고 러시아 북부 지역에 관한 영화도 있다.

또한 이 공모전에는 마가단주와 무르만스크주(각 14개 작품), 야쿠치아(11개), 아르한겔스크주(7개) 여행에 관한 영화가 출품되었다. 참가자들은 네네츠크 자치구와 코미 공화국 경로에 관해 6편의 영화를 보냈다. 카렐리아, 야말로네네츠크 자치구, 추코트카에 관해 각각 5편의 영화가 제작되었으며, 한티만시이스크 자치구에 관해서는 3편의 비디오 작품이 제작되었다.

가장 인기 있는 부문은 '도보 여행'으로, 323편의 영상이 출품되었다. '수상 여행' 부문에는 80개 작품, '북극 여행'에는 58개, 그리고 '겨울 여행' 부문에는 33편의 비디오롤이 접수되었다.

특별 부문 '승리의 오솔길'에는 이미 12편의 영화가 선정되었다. 이 부문은 극동 및 북극의 전투 영웅 지역 경로에 헌정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추코트카 최고의 여행에 대한 특별상인 100만 루블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 공모전의 대상은 가장 큰 금액으로 유지되는데, 최고의 영화상으로 300만 루블리가 주어진다.

신청 접수는 2026년 1월 15일까지이다. 참가하려면 극동 또는 북극 지역의 하이킹이나 여행에 관한 최대 8분 길이의 단편 영화를 촬영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업로드해야 한다. 전문 카메라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도 촬영할 수 있으며, 촬영 품질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주요 조건은 경로 시작 지점까지의 이동을 제외하고는 탈 것 없이 여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Сахалин лидирует по числу фильмов о путешествиях на конкурсе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За первые шесть месяцев третьего сезона конкурс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жюри рассмотрело 506 фильмов.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 инициатор проекта, полпред президента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По его словам, конкурс помогает людям открыть для себя красоту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найти новые маршруты и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с окружающими.

Конкурс ставит целью вдохновить людей на то, чтобы увидеть величие и многообразие природ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воими глазами. Участники могут отправиться на Сахалин, в Якутию,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Магаданскую область и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Они могут пройти по уже известным маршрутам или открыть собственные тропы, а затем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Благодаря присланным фильмам каждый зритель может прожить приключение вместе с авторами и почувствовать атмосферу настоящего путешествия.

В этом году больше всего фильмов посвящено путешествиям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их 148.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оказалс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с 84 работами, за ним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 56 фильмов. Амурская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лена 37 видеороликами, Ев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 32. Также в программе есть фильмы о Забайкалье, Камчатке, Бурятии, Магаданской и Мурманской областях, Якутии, Карелии и северны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Также в конкурсе представлены фильмы о путешествиях по Магаданской и Мурманской областям (по 14 работ), Якутии (11), Архангельской области (7). По шесть фильмов прислали участники о маршрутах в Ненецком округе и Республике Коми. О Карелии, ЯНАО и Чукотке снято по пять фильмов, а о ХМАО — три видеоработы.

Самой популярной стала номинация «Пешее путешествие» — на нее подали 323 фильма. В номинацию «Вод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ступило 80 работ, «Арктическое путешествие» — 58, а «Зимнее путешествие» — 33 видеоролика.

В специальную номинацию «Тропами Победы» уже отобрано 12 фильмов. Она посвящена маршрутам по местам боевой слав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могут побороться за специальный приз — 1 млн рублей — за лучше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Чукотке. Главный приз конкурса остается самым крупным: 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за лучший фильм.

Прием заявок продлится до 15 января 2026 года. Чтобы участвовать, нужно снять короткий фильм длительностью до восьми минут о походе или путешествии по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или Арктике и загрузить его через сайт. Снимать можно как 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камеру, так и на телефон — качество съемки не является решающим.

(8면에 계속)

사할린 화가 조성용, '아트-블라디보스토크' 국제전에서 그랑프리 획득

사할린의 화가 조성용 씨가 극동 지역 최대 미술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9회 '아트-블라디보스토크' 국제 전시-콩쿠르에서 전문가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시회의 개막식은 지난 11월 18일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러시아 화가 동맹 연해주 지부에서 열렸다.

이번 콩쿠르에는 중국, 한국, 블라디보스토크, 칼리닌그라드, 야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하바롭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등 여러 도시 출신 작가 140명이 참가했다. 출품작은 회화, 선화, 공예 등 3개 부문과 세 가지 연령별 카테고리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그랑프리와 1, 2, 3등 수상자가 선정됐다.

조성용 화백의 작품 '밤의 피테르(페테르부르그의 애칭)'은 지역 미술계를 대표하는 전문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성용 화백은 사할린 지역의 저명한 화가이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추진 중인 전략적 프로젝트 '사할린주 미술가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 화백은 이르쿠츠크 예술전문학교 극동국립예술대학(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문 미술 교육을 받았다. 1994년에는 러시아 화가 동맹 회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오랜 기간 창작 활동과 함께 2022년까지 사할린 예술전문콜레즈 디자인과 학과장을 역임하며 교육자로서도 활약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선명한 색채, 감정적인 표현력, 빛의 변화에 대한 세심한 주목이 특징이다. 그의 회화에서 사할린의 풍경과 분위기, 특성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도시의 모티브, 그래픽 구성과 설치 미술 작품에서 그는 전통 기법과 현대적인 시각 방식을 결합하기도 한다.

올해는 조 화백에게 특별한 해로, 그의 65번째 생일과 예술 인생 35주년을 맞이했으며, 이번 국제 콩쿠르에서의 승리는 지역 및 국가 미술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중요한 사례이다. 또한 조 화백은 올해 9월에는 '체호브를 그리는 사할린'전시-콩쿠르에서 대상, '사할린 아팔리나'주 콩쿠르의 그랑프리, 그리고그 작품 '북부 얼음 길'은 약 1000명의 화가가 참가하는 '대북극 원정. 예술로서의 북극'공개 콩쿠르에서 최정 15점의 우승 및 입상 작품에 선정되었다. 선정된 작품들은 북극으로 가는 '전승 50주년'쇄빙선에서 전시된다.

'아트-블라디보스토크' 국제 전시-콩쿠르는 극동국립예술대학과 러시아 화가 동맹 연해주 지부가 주최하며, 전시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사할린국립대학교, 외국어 경연대회 '섬의 경계-2025' 개최

지난 21일(금)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은 '섬의 경계'외국어 경연대회의 최종 단계를 개최했다. 첫 단계는 10월 중순 필기시험 형식으로, 497명의 학교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최종 말하기 단계에는 155명이 외국어 실력을 뽐냈다.

외국어 경연대회는 4가지 부문(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와 영어)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번 경연대회의 주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이었다.

한국어 부문을 포함한 이번 대회는 사할린 지역은 물론 모스크바, 카잔,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각지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주요 학술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교 학생(6-9학년)의 경우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시 낭송을 해야 했다.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의 태도와 발음, 억양 등을 평가했다. 이들은 이날 '농악', '김장', '한국의 맛'이란 시 중 하나를 골라 낭송했다. 많은 참가자들은 한복을 입고 등장해 준비된 정성과 마음이 보기에 좋았다.

고등부와 대학부 참가자들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중 하나를 소개하는 팩트 파일을 주제로, 말하기 평가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10분의 준비 시간을 갖고 한국어로 문화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심사위원과의 대담을 이어갔다.

한국어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임 엘비라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학장은 "참가자들의 준비 과정과 도전 정신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사할린한국교육원 정승훈 원장과 사할린한인청년회 이 세르게이 회장이 참여해 보다 전문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섬의 경계'외국어 경연의 최종결과는 12월 초에 발표된다고 주최측이 전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제10회 FLC Re-Union CIS 고려인 차세대 포럼, 모스크바에서 개막

제10회 FLC Re-Union CIS 고려인 차세대 포럼이 2025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15개 지역)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벨라루스에 거주하는 고려인 차세대들이 참가했다.

올해는 소련 인민의 대조국전쟁 전승 80주년과 한반도 해방 8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따라서 이번 포럼 프로그램에서도 역사적 기억이라는 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포럼의 특별한 손님인 세르게이 하 프로듀서와 안톤 도카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 〈토박이〉 상영회를 가졌다. 사할린한인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사할린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포럼 참가자 대부분이 중앙아시아 고려인 후손이었지만, 영화는 모든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주최측은 사할린 한인의 이야기를 포럼 참가자들에게 전해줄 기회를 마련해준 영화 제작진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 프로그램은 내용이 다양했다. 타쉬켄트, 비쉬케크, 노워시비르스크, 프스코브, 로스토브-나-도누, 니즈니 노브고로드와 웰리키 노브고로드 출신 고려인 청년 활동가들은 한국 문화 홍보 행사 진행 경험을 공유했다. 과거 FLC 포럼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FLC 2017 참가자이자 미국 보스턴에 거주하는 김 올레그는 고려인 음식점 'Koryo House'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에서 고려 음식을 성공적으로 알린 사례를 발표했다. FLC 2016 동기이자 네덜란드 헤이허호바르드에 거주하는 김 안드레이-세르게이는 팟캐스트 '고려의 사람' (t.me/chelovek_iz_koryo; vk.com/koryosaram)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FLC 2001 동기이자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신 드미트리는 고려인의 역사적 뿌리를 찾는 연해주와 한국 탐방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포럼의 하이라이트는 유명 블로거 한 스타니슬라브(dr-khan.ru)와의 만남이었다. 유명 내분비학자이자 《갑상샘에 대한 열정》 책의 저자인 그는 건강한 생활 방식 확산을 위한 자신의 활동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번 포럼은 재외동포청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FLC Re-Union CIS 포럼은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와 CIS 지역의 활발한 고려인 청년들 간의 우정 증진, 교류, 지식과 경험 공유라는 목표를 꾸준히 실현해 왔다. 2026년 포럼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flc.cis.reunion@mail.ru)로 문의하면 된다.

(포럼 조직위원장 박 알렉산드르)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덕재

관리번호	953873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성명	김덕재	한자	金德在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1870)	사망년월일	미상
본적	강원도 통천		

공훈록

김덕재는 대한제국 때 육군 보병 정위를 지냈으며, 1900년경 러시아의 남부 우수리 노우키에프스코에로 이주하여 이범윤(李範允)의 휘하에서 국권회복, 항일독립운동을 하였다. 1919년 2월 동지에서 2회에 걸쳐 반일사상을 고취하는 강연을 하였다.

1920년경 러시아 노우키에프스코에서 모일세이 황(黃) 등과 함께 옴스크정부의 징병에 응하지 말고 친일파을 배척하고 처단하며, 한국독립운동 종사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병기탄약의 매매 운수, 군자금 조달, 의병 모집 등에 진력해야 한다는 등의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방법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鮮人의 行動에 關한 件(1920. 2. 1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시베리아(9)

·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국가보훈처) x ix 日本篇(6) 274~276면

묘지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주)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진실로 우리는 / 오규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모르고 있다.
이웃 연탄집 아저씨의 웃음이
매일 조금씩 검어지는 것도
그리고
연탄들이 연탄집의 방향을
산간 지방으로
차츰 바꾸고 있는 것도.

이웃집 아저씨가 연탄이
아저씨를 감화시키는 사실을 모르듯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
물드는지 모르고 있다.

진실로 우리를 감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다.
연탄집의 햇빛은
연탄가루 때문에
조금식 엷어져 갈 뿐이다.

"하루에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순위를 매긴다면, 아마 저는 대한민국에서 상위권에 등록할 수 있을 겁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닌데, 살아오면서 '적다'는 소릴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거 참 말 많네' 이런 소리는 그렇게 많이 들어 보질 못했던 것 같고, 뒤에서는 그렇게들 얘기하셨으려나, 뭐, 아무튼. 그저 '줄여라!' 이런 말을 들어오며 살았지 싶습니다. 말이 많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쓸데 없는 말 만큼은 지양해야겠지요', 이렇게 제가 무릎을 꿇을 것만 같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아니지요. 저는 쓸데 없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말은요. 말씀드리자면 말 실수로 기억되거나 기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좋거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조차 별로 없을 테니, 뭐. 시시한 농담이나 시덥잖은 미학을 저는 그저 그런 설탕같은 말들을 아예 소다를 넣고 국자로 끓여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언어는 '달고나'에 이르렀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제 말 버릇도 때로는 의외로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곤 하는데요. 작품에 녹여 넣은 그 수 많은 말들을 압축하고, 뒤흔들어서, 대본을 집필했는데, 저는 굉장히 철학적이며 수준 높은 위트라고 생각했건만,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분위기를 맞이했을 때, '아, 좀 더 집중을 다해 말의 과녁을 향해 좀 더 정확하게 날렸어야 했던 걸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물론 전 아직 제 담론의 미학을 그리 쉽게 내어주지 않을 욕심을 간직하고 있기에 뻔뻔하게 배우들에게 제 고집을 보이는 편이지요. 아직까지는. 이를테면 저는 도스토예프스키Достоевский의 '마르멜라도프Мармеладов'에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말을 줄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음과 음 사이의 침묵이 진정한 음악이기 때문이라면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드뷔스가 그랬지요. 그 시대 때 작곡가라면 에릭 사티, 드뷔시가 제법 BTS급이었던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 언제나 플렁Poulenc을 좋아했다면 대답이 될 수 있겠지요? 플렁의 피아노 악보를 살펴보면 음표만큼 말이 참 많아 보일 테니. 쉴 틈 없음, 거의 하농 급, 예압, ㅋ."

(서울에서 허진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Дё Сон Ен получил Гран-при IX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и-конкурса «Арт-Владивосток»

Сахалинский художник Дё Сон Ен завоевал Гран-при IX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и-конкурса «Арт-Владивосток», став лучшим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категории одного из крупнейши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проект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состоялось 18 ноября в Приморском отделении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В этом году конкурс объединил 140 авторов из Кита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ладивостока, Калининграда, Якутска, Красноярска, Хабаровс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лаговещенска, Петропавловска-Камчатского, Арсеньева и других городов. Работы представлены в трёх номинациях — живопись, графика 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е искусство — и трё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По итогам творческого смотра жюри присуждает Гран-при и звания лауреатов I, II и III степени.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произведению «Ночной Питер» Дё Сон Ена дал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в которую вошли ведущие деятел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региона: искусствовед и директор Примор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артинной галереи Алёна Даценко,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имор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Илья Бутусов, профессора ДВГИИ Игорь Обухов и Наталья Попович, художник-керамист Евгений Лапо и заведующий кафедрой живописи Александр Енин. Председателем жюри выступила ректор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скусств Олеся Перич.

Дё Сон Ен — известный художник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активный участник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Худож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емог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н получил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Иркутском училище искусств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институте искусств. С 1994 года является членом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совмещал твор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с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возглавляя кафедру дизайна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до 2022 года.

Творческая манера Дё Сон Ена отличается ярким колоритом, эмоциональной выразительностью и вниманием к световым переходам. Центральное место в его живописи занимает Сахалин — его пейзажи, атмосфера и характер. Работы художника также включают городские мотивы, графические композиции и инсталляции, в которых он сочетает традиционные техники с современными визуальными методами.

Нынешний год стал для художника особенным: Дё Сон Ен отметил своё 65-летие и 35-летие творческого пути. Побед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стала значимым признанием его многолетнего вклада в развитие искусства региона и страны.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конкурс «Арт-Владивосток» организова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нститутом искусств и Примор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имор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артинной галереи и ЗКХ «Невская палитра». Экспозиция будет открыта для посещения до 30 ноября 2025 год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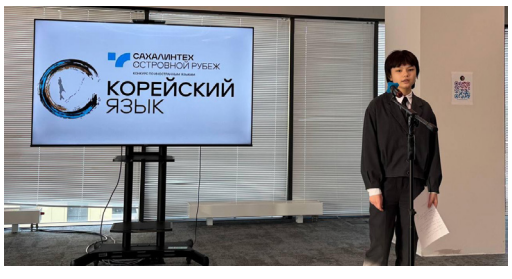
Завершился конкурс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Островной рубеж»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завершился конкурс по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Островной рубеж». Мероприятие, включенное в этом году в перечен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свещения РФ, привлек много участников. Организатором выступил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л по четырем номинациям: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корейский и японский языки. Общее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достигло 155 человек в финале, а в отборочном этапе попробовали свои силы 497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География участников охватила практически всю область, а также такие города, как Москва, Казань, Иркутск, Хабаровск и Владивосток.

21 ноября в центре «Айхор» собрались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участники 4-х номинаций), вышедшие в финал конкурса. Если на первом (отборочном) этапе участников ждали письменные задания, то втором участники состязались в умении говорить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И не просто говорить, а на определенную тему – о нематериальном культурном наследии ЮНЕСКО.

Особой насыщенностью отличалась программа конкурс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чащиеся 6-9-х классов состязались в умении выразительно читать стих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ногие из них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выступления одели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рейский наряд – ханбок.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и студенты 1-2 курсов выполняли более сложное задание: им был предложен факт-файл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б одном из объектов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в Корее. Всего за 10 минут, данных на подготовку, конкурсанты должны были осмыслить материал и представить его на суд жюри и публики.



В состав авторитетного жюри этой номинации вошли директо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г-н Чон Сынхун,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молодеж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Ли Сергей. Председателем жюри стала самый главный организатор данного конкурса -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Эльвира Лим.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 состоится в начале декабря этого года,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СахГУ)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шестнадцато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Редколлегия

Ненаглядный мой сын Санънюль (상률)!

Передаю новости через радио KBS людям, которые, должно быть, даже в этот час где-то на далеком Сахалине глубоко думают о своих родителях, братьях и сестрах, оставшихся дома на родине. Что в это время делает мой сын Санънюль?... Он крепко спит или слушает послание, которое посылает его мать? Сколько же страданий выдержали в далекой чужой стране. Твоя мать в родном городе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ет возвращения сына Санънюла в свой дом (1). Боль материнского сердца неописуема. Иногда плакала без конца, а были времена, когда не могла спать, потому что думала о своем сыне Санънюле, и плакала всю ночь.

Когда я думаю о том, каких таких грехов мы совершили в наших прошлых жизнях, что нам, матери и сыну, приходится вот уже 30 лет жить врозь, у меня перехватывает горло и тяжело на сердце.

Мой сын Санънюль! Прошло время, прошло 37 лет. Твоей матери в этом году исполнилось 73 года. Ты это хорошо помнишь, да? Я все еще жива и жду твоего возвращения, и я буду продолжать ждать тебя.

Санънюль! Не волнуйтесь, все твои младшие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здесь женаты, растят сыновей и дочерей и живут счастливо. Твоя мать не знает, о чем думать. Сын Санънюль, по которому скучаю каждую ночь и каждый день, вижу лицо Санънюла, которое всегда стоит перед глазами матери... Как бы долго этот образ не стоял перед глазами, наяву не вижу сына и не могу уснуть. Эта мать смотрела на небо Сахалина, далеко на север, с доброй земли Кореи, и плакала, и звала сына без конца, но ответа не было от моего сына Санънюла.

Санънюль! Твоя мам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 знала, что ты можешь быть таким бессердечным. Если бы сын хоть немного задумался о сердце матери и сердцах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братьев и сестер, он бы предстал перед глазами матери.

Мой сын Санънюль! Когда ты был ещё дома, наш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были не такими уж хорошими, но сейчас мы заработали много денег, построили новый дом и живем в роскоши, так что не волнуйся. Когда тебе было 17 лет, ты уехал в Японию, а ваш отец лежал больной в постели. Твоей матери пришлось в одиночку заботиться о твоих младших братьях и сестрах. Мне пришлось нелегко, я много страдала, но я выдержала все эти страдания и теперь живу счастливо.

Санънюль! Сейчас тебе 54 года. Твоя мать передаст это письмо по радио и будет день за днем ждать новостей о своем сыне Санънюле. Когда думаю о том, что скажу первым делом, когда мы встретимся, не могу сдержать слез. Стоит ли винить мир? Бесполезно кричать в пустоту и не услышать ответа от сына Санънюла.

Я иногда представляю и вижу во сне, что сын женился где-то на Сахалине, что он вздыхает по матери. Мы не единственные несчастные разлученные семьи, но я надеюсь, что вскоре наступит мир во всем мире, и мы все сможем обнять друг друга и встретиться снова. Тебе 54 года, так что у тебя наверняка седые волосы. Я думаю, ты поймешь сердце своей матери, ведь за 37 лет от тебя не было ни одной строчки письма. Но верю, что мой сын Санънюль услышит эту передачу и передаст мне хорошие новости. На этом заканчиваю. До свидания.

Из Ан Гым, деревня Наджон, район Сэнним, область Кимхэ, провинция Южная Кёнсан (경상남도 김해군 생림면 나전리 안금), мама

Перевод: Ин Му Хак

Комментарии:

(1)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собенно в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 и официальном общении, исторически сложилась уникальная традиция избегать местоимений первого лица («я», «мне») и второго лица («ты», «вас»), заменяя их упоминаниями в третьем лице. Эта особенность, наиболее ярко проявляющаяся в письмах, глубоко укоренена в культурных и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особенностях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Главная причина этого явления лежит в культурном контексте иерархии и коллективизма.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традиционно строится на строгой иерархии, определяемой возрастом, социальным положением и степенью близости. Прям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я» и «ты» может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как излишне прямое, фамильярное или даже грубое, особенно при общении со старшим или вышестоящим человек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е третьего лица позволяет дистанцироваться от прямого высказывания, делая коммуникацию более вежливой и смягчая просьбы или утвержд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в культуре, где гармония в группе ценится выше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самовыражения, подчеркивание своего «я» может считаться нескромным.

С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вместо местоимений выступают конкретные имена и статусы. Так, автор письма может называть себя «мать» или «старший брат», а адресата — «сын» или «младший брат». В личной переписке широко используются термины родства, даже между не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старшая сестра может написать «старшая сестра (언니) хотела спросить...», а младший брат — «Младший брат (동생) выполнил поручени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также часто позволяет просто опускать подлежащее, так как роль субъекта ясна из контекста и вежливых окончаний глагола, что делает фразу «Отправлю документы» более естественной, чем «Я отправлю документы».

На практике это выглядит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вместо фразы «я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тебя за подарок» может быть написано «младший брат хочет поблагодарить старшую сестру за подарок».

С развитием цифров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и влиянием западной культуры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естоимений становится более частым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в неформальном общении. Однако в официальной и деловой переписке, а также в общении со старшими традиционная модель остается нормой и признаком хорошего воспитания. Эта традиция — не просто лингвистическая особенность, а прямое отражение ключевых ценностей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ерархичности, уважения к статусу и коллективизма, служащая инструментом поддержания социальной гармонии.

Юлия Дин, к.и.н.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К проведёт саммит G20 в 2028 году

РК проведёт саммит «Большой двадцатки» (G20) в 2028 году с «глубоким чувством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выступая 23 ноября на третьей, заключительной сессии саммита G20 в Йоханнесбурге. Он пообещал сделать всё возможное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укрепления роли «Большой двадцатки» в качестве «ведущего форум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ыступая на сессии, проходившей под девизом «Справедливое будущее для всех», Ли Чжэ Мён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здания стабильной и взаимовыгодной цепочки поставок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х минералов в условиях неопределённости, вызванной обострением торговой напряжённости между США и Китаем. «Мы должны создать стабильную и взаимовыгодную цепочку поставок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х минералов, в которой страны, богатые минералами, и страны-импортёры минералов будут делить выгоды»,- отметил он. РК продолжит поддержив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е усилия по построению взаимовыгодных и устойчивых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а развити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должно предоставлять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всем странам и народам,- подчеркну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В Анкаре состоялся южнокорейско-турецкий саммит

24 ноября в Анкаре состоялся южнокорейско-турецкий саммит. Президенты двух стран - Ли Чжэ Мён и Реджеп Тайип Эрдоган –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ах обороны, ядерной энергетики, медико-би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других областях в целях углублен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Лидеры двух стран обсудили также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выразив поддержку миротворческих усилий друг друга. Ли Чжэ Мён поблагодарил Турцию за поддержку политики 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высоко оценил усилия Эрдогана по укреплению региональн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Он пообещал расширить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сирийских беженцев в Турции. Выступая на итогов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назвал Турцию «братской страной», сражавшейся на стороне Сеула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1950–1953 годов. Он отметил турецкую программу создания боевого танка Altay, основанного на технолог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танка K2, как пример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вух стран. Эрдоган сообщил, что первая партия танков Altay уже передана турецким военным, выразив надежду на реализацию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в области обороны. По итогам саммита стороны подписали ряд меморандумов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в том числ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атомной энергетики, который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родолжение консультаций по проекту втор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в Турц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ругими меморандумам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ах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препаратов кров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моста и подводного туннеля в Турции. Компании двух стран договорились сотрудничать в ветроэнергетике и создании первого в Турции предприятия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электромобилей

В Абу-Даби прошёл бизнес-форум РК-ОАЭ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содействия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и инвестициям (KOTRA) провело в Абу-Даби бизнес-форум по вопросам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И) и энергетики в целях содейств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и Объединёнными Арабскими Эмиратами (ОАЭ).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20 ноября в рамках делового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двух стран. В форум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3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работающие в сферах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энергетики, а также 69 компаний из ОАЭ, Катара и других стран регион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договорились со своим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партнёрами о заключении потенциальных деловых сделок на общую сумму 12 млн 850 тыс. долларов.

Граждане РК за рубежом смогут голосовать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гражданам страны, проживающим за рубежом, возможности электрон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23 ноября в Йоханнесбурге встреч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Южноафрика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Он отметил, что многим из примерно четырёх тысяч южно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этой стране, приходится преодолевать большие расстояния до посольства ил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чтобы исполнить свой гражданский долг. Система электрон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облегчит положен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н добав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силит поддержку южнокорейских общин за рубежом, чтобы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могли в полной мере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права.

RKI

Юбилейный 10-й Форум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FLC Re-Union CIS прошел в Москве

С 21 по 23 ноября 2025 года в Москве прошел юбилейный 10-й Форум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FLC Re-Union CIS. Мероприятие традиционно объединило участников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15 регионов), Узбекистана, Казахстана, Кыргызстана и Беларуси.

В уходящем году прошл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празднованию 80-летия Победы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и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 японского империализма. Поэтому тема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стала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в программе юбилейного форума. Почетные гости – продюсер Сергей Ха и режиссер Антон Дока – провели закрытый показ своего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Местные», который уже вызвал значительный интерес у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хотя большин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являются потомками корейцев из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фильм оставил у всех зрителей неизгладимое впечатление. Организаторы благодарят авторов картины за возможность рассказать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сем собравшимся.

Программа юбилейного форума была насыщенной. Активисты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из Ташкента, Бишкека, Новосибирска, Пскова, Ростова-на-Дону, Нижнего и Великого Новгорода поделились опытом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ов FLC прошлых лет рассказали о своих проектах. Так, об успешном опыте продвижения кухни коре-сарам в США (проект Koryo House) рассказал Олег Ким (участник FLC 2017, Бостон, США). О запуске подкаста «Человек из Коре» (t.me/chelovek_iz_koryo; vk.com/koryosaram) сообщил Андрей-Сергей Ким (участник FLC 2016, Херхюговаард, Нидерланды). О краеведческих турах в Приморье и Южную Корею, открывающих исторические корни коре-сарам, рассказал Дмитрий Шин (участник FLC 2001, Москва). Ярким эпизодом форума стала встреча с известным блогером Станиславом Ханом (dr-khan.ru). Станислав – известный врач-эндокринолог, автор книги «Страсти по щитовидке», – рассказал о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популяризации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и ответил на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вопросы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 прошел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Overseas Koreans Agency). Организаторы выражают агентству искренню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помощь.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х 10 лет сво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ежегодный Форум FLC Re-Union CIS выполняет свои цели: содействует укреплению дружеских связей, общению и взаимному обмену знаниями и опытом меж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активной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в России и СНГ. Если вы хотит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2026 года, просим связаться с оргкомитетом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flc.cis.reunion@mail.ru.

(Александр Пак, организатор форума)

Экс-президенту Южной Кореи Юн Сок Ёлю предъявл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обвинения

Список официальных обвинений, выдвинутых в адрес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н Сок Ёля, пополнился. Экс-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и еще 11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военных и чиновников обвиняются в том, что они вмешивались в работу следователей и принуждали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К изменить свои выводы по поводу причин и обстоятельств смерти солдата морской пехоты Чхэ Су Гына, который погиб летом 2023 года в процессе работ по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наводнени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обвинения были выдвинуты и переданы в суд одной из трех следственных групп спецпрокуроров, которые ведут расследования в отношении экс-президента и его жены Ким Гон Хи. Напомним, что Юну уже предъявлены обвинения в помощи врагу и попытке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ечером 3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Согласно мнению следователей спецпрокурора Чон Мин Ёна, Юн Сок Ёль резко отреагировал на доклад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пуса морской пехоты, которые возложил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гибель военнослужащего, среди прочих, на командира 1-й дивизии морпехов Им Сон Кына.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нацбезопасности 31 июля 2023 года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заявил: "Если за такие инциденты привлекать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командиров дивизий - кто тогда захочет ими быть?" Позднее он лично позвонил министру обороны Ли Чжон Собу, высказывая недовольство тем, что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могут привлекаться высшие офицеры.

По выводам следствия, именно после этих сл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приступило к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му изменению выводов следственной группы. Высшие должностные лица распределили роли и начали откровенно "переписывать" материалы дела. Ю Чжэ Ын, тогдашн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авов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нобороны, потребовал от главы следственной группы полковника Пак Чжон Хуна исключить имя дивизионного командира из числа подозреваемых. Когда Пак отказался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ередал материалы в полицию, командование приказало остановить процесс и вернуть дело обратно в военное ведомство.

По данным спецпрокуратуры, после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возврата дела его фактическим переписыванием занялась групп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военного советника минобороны Пак Чжин Хи. Итог - из списка фигурантов были исключены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командиры, фигурировавшие в первоначальных материалах морской пехоты.

Отдельным эпизодом расследования стали меры, предпринятые против полковника Пак Чжон Хуна. Полковник Пак, напомним, провел первоначаль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обвинил в том числе комдивизии в гибели подчиненного, а затем занял принципиальную позицию, отказавшись что-то менять в своих выводах. После его отказа "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материалы дела он был снят с должности, а затем - обвинен в неповиновении и привлечен к суду. Спецпрокуратура установила, что офицеры, проводивши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ротив Пака, применяли неоправданные попытки задержания и другие методы давления.

Более того, несколько бывши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Минобороны, вызванных затем в суд по делу Пака, дали показания, которые, по версии спецпрокурора, были заведомо ложными 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достижение обвинительного приговора.

Отметим, что полковник Пак потом отстаивал свою честь в суде. После импичмента Юн Сок Ёлю и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Ли Чжэ Мёна новый президент. наоборот, лично наградил полковника орденом в ходе публичной церемонии и назвал его действия образцом принципиального подхода настоящего военного и следователя.

Спецпрокуратура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действия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являлись не выражением позиции, как настаивают адвокаты экс-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а прямым, адресным вмешательством в расследование - тем более что материалы дела на тот момент уже были официально направлены в полицию. По словам спецпрокурора Чон Мин Ёна, Юн "полностью вышел за пределы возможных полномочий Верховного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его", а происходившее "подрывало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ледствия и нарушало основные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е гарантии граждан".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бвинения по делу о давлении на расследование в отношении гибели морпеха были предъявлены спустя два года и три месяца после трагедии. На скамью подсудимых, помимо экс-президента, отправлены бывший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Ли Чжон Соб, экс-глава разведслужбы Чо Тхэ Ён, бывший зам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Син Бом Чхоль и другие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фигуранты. Все они предстанут перед судом без ареста -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самого Юн Сок Ёля, который ранее был взят под стражу в рамках другого дела.

Спецрасследование по эпизоду давления на следствие завершено. Судебный процесс над экс-президентом и его окружением станет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политико-правовых историй в Южной Корее в ближайшие месяц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редства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укрепят региональные соци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Предприятия рыбопромысловой отрас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товы к вступлению в силу изменений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х их боле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социальной жизни региона. По новым правилам, в обмен на пользование рыболовными участками предприятия должны вкладываться в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программы. На этой пойдет 15% от платы за пользование промысловыми участками.

Информация о готовности бизнеса к жизни по новым правилам прозвучала на заседан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а Зайцева. В целом, островной бизнес оказался готов к изменениям. Многие предприятия отрасли уже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реализации соци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например, являются партнер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Доступная рыба».

—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 основа экономик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едприятия не только создают рабочие места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но и — ч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 обеспечивают жителей свежими дарами моря. По объемам вылова и производств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ходит в число лиде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У нас крупнейший добывающий флот в Тихом океане и богатый потенциал береговых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производств. По итогам 2025 года ожидается вылов 800 тысяч тонн всех видов рыбы. Это станет рекордным показателем, — сказал Антон Зайцев.

Главной темой совещания стало перезаключение договоров пользования рыболовными участками на 20-летний период. Кампания стартовала 1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и продлится до 1 апреля 2026-го. В рамках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ом законе «О рыболовстве и сохранении водных биоресурсов» с 1 сентября 2024 года начали действовать новые правила, по которым компании обязаны подписывать соглашен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оци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 Всего в области насчитывается порядка 500 договоров на пользование рыболовными участками. Заключая договоры, предприятия обязуются участвовать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оекте «Доступная рыба», а также в иных программах и мероприятиях,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развитие области. В региональный бюджет поступит 15% от платы за заключение каждого договора, — сказал министр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Радченк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выдвигают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соглашения. Так, от президента «Ассоциаци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Сахалина» Дмитрия Матвеева прозвучала также инициатива о возможности смены назначения рыболовных участков.

— Договоры заключаются на очень длительный срок. Просим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изменения назначения участков с промышленн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на рыболовство в целях аквакультуры. Например, в заливе Анива можно было бы заниматься марикультурой.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и активно выступают за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 отметил Дмитрий Матвеев.

Отдельно обсудили итоги лососевой путины. В этом году зафиксировано снижение добычи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на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Сахалина. Ученые связывают это с тем, что лето было очень жарким — сложились не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нереста.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не было заходов рыбы и в нерестовые реки Южных Курил. В итоге общий объем вылова горбуши составил около 5,4 тысячи тонн, кеты — 14,5 тысячи тонн.

На основании рекомендаций науки принимались оперативные меры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добычи. Основные действия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заполнение нерестилищ, чтобы в дальнейшем обеспечить возврат рыб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ратегией промысла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на 2025 год, не открывалась добыча горбуши на юго-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Сахалина, в заливах Анива и Терпения, на островах Итуруп и Кунашир. На других участках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заполняемости рек также вводились ограничения. А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е Сахалина с 15 августа был остановлен промысел.

— Наши обследования в середине сентября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е Сахалина показали, что, по сравнению с концом августа, заполняемость существенно увеличилась. Значит, предпринятые нами меры себя оправдали, — подытож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НИРО Николай Колпаков.

Отметим, одна из мер по сохранению численности лососей - их искуственное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о. Так, ежегодно лососевые рыборазводные заво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пускают около 1,4 млрд мальков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в том числе 1,2 млрд — кет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к зиме заменили 42 километра коммунальных сетей

План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безаварийному прохождению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обсудили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здан необходимый запас топлива, к наступлению холодов подготовлены все объекты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ой и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а также дорожная техника.

— Зимний период — это ответственное время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Важно обеспечить бесперебойную работу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одготовить дорожную технику к снегопад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держит этот процесс на постоянном контроле,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на подготовку коммун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к зиме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направили 1,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Подрядчики заменили 41,9 километра тепловых, водопроводных сетей и сетей водоотведения. Были приведены в порядок 195 котельных, 22 центральных тепловых пункта, 71 водозабор, 102 водонасосные станции и 104 объекта водоотведения. Сформирован запас твердого и жидкого топлива — порядка 87,5 тысячи тонн.

В целях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и устранения аварийных ситуац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создан резерв материальных ресурсов на сумму 131,6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Он включает водогрейные котлы, насосы, электродвигатели, трубы, запасные части для оборудования, строите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и др. На объектах ЖКХ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сформированы 133 аварийно-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е бригады, в которые входят более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их распоряжении находятся 408 единиц техники.

В дорожном хозяйстве к предстоящим зимним осадкам приведены в готовность 1543 единицы техники, сформирован запас материалов для борьбы с гололедицей — песка и реагентов. Обеспечивать расчистку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магистралей от снега будут 36 подря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 Подготовка к зиме проведена в портах Холмска и Корсакова, которые обеспечивают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ие перевозки как на Курилы, так и на материк.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резерве находятся 19 единиц техники. Подря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приведены в полную готовность. Все готово для уборк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магистрали: выделено 24 единицы техники и определено 123 места для выгрузки снега. Рисков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мы не видим, — доложи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к обследованию дорог будет привлечена система нейросетевой видеоаналитики. Автомобильный комплекс будет фиксировать снежно-ледя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на проезжей ча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эффективно решает проблемы демографии благодаря «Счастливому материнству»

Стратег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вращающая материнство в осознанный и поддерживаемый государством, бизнесом и обществом выбор, представлена на Красноярском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м форуме. Опыт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где реализуется уник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уже показывает результаты: улучшени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и создание комплексной поддержки для семей. Начинание стало практическим воплощение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емья» и семейноцентричного подхода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е.

На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е «Семейноцентрич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рамках Красноярского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представила доклад «Стратегия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как основа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Опы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основе сахалинского подхода – системная работа по вс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от сохранения репродуктивного здоровья и поддержки женщин в ситуации сложного выбора до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среды, объединяющей усилия власти, бизнеса и НКО. Регион демонстрирует эффектив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оста суммарного коэффициента рождаемости, в 2024 году он составил 1,745.

«Мы поставили женщину в центр семьи и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ведем системную работу по поддержке семьи и женщин, которую иници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ша задача – не просто выплачивать пособия, а создавать условия, в которых рождение ребенка становится желанным и радостным событием, а материнство – уважаемым и поддерживаемым обществом выбором. Для этого мы действуем на опережение: разрабатываем с предприятиями карьерные планы для женщин,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рожать, сохраня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позиции, расширяем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включая ЭКО, и внедряем сервисы бытового комфорта, такие как служба нянь и персональные «Проводники счастья» для будущих мам», – подчеркнула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Ольга Орлова.

В сфере остров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значимых результатов: создан единый регистр, более 1100 женщин и 850 мужчин прошли углублен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в рамках скрининга. Парам также стала более доступной процедура ЭКО, с 2025 года введена новая ме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 оплату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связанных с лечением бесплодия.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социальному сопровождению женщин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Благодаря комплексной помощи 30 из 55 таких женщин в этом году сохранили беременность.

Компании региона активно внедряют корпоративный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стандарт, мотивируемые не только социаль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но и реальными бизнес-преимуществами — снижением текучести кадров и укреплением HR-бренда. Реализация этой комплексной работы является примером практического исполнения поручений Президента по народосбережению и осн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емья».

Объявление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2026 года Годом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регион продолжит работу,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улучшение демографии.

Новая школа изменит жизнь села Взморье

Три спортивных зала,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класс, музей, универсальные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появится в селе Взморье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в 2026 году, когда будет сдан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овая школа-детский сад.

Сейчас в селе проживает около семидесяти детей школьного и до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Ново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рассчитано на 90 мест и по мнению жителей его появление стан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стимулом для развития Взморья.

- Мы активно привлекаем в наш коллектив молодых инициативных педагогов. Сейчас штат укомплектован полностью, но с вводом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ового здания, появятся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ведь его необходимо обслуживать и содержать,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школы села Взморье Дмитрий Малхасян.

Новая школа изменит к лучшему жизнь не только детей и учителей. Она станет точкой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села. Спортивные залы, оборудованные для занятий разными видами спорта,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для общего посещ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в учреждении разместится историко-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В старом здании для этого была приспособлена небольшая комната. Музей смогут посещать как местные жители, так и гости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школы ведётся по программе «Развитие образова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емой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конча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конец 2026 года, но строители прилагают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чтобы закончить объект к началу ново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 Внешние стены и перекрытия уже готовы. Работы идут с небольшим опережением графика. Сейчас строятся инженерные коммуникации и внутренние перегородки. С наступлением тепла подрядчик приступит к отделочным работам,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ице-мэр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Артём Фисуненк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й школы-детского сада во Взморье - часть большой работы, которая ведется по вс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мы создали по-настоящему мощ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для обуч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наших детей. Был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о 80 школ, обновлено 93 детских сада, построено 12 новых школ и 6 детских садов. Поступательно, шаг за шагом мы приближаемся к решению важной задачи, которую поставил перед нами губернатор - качественное, доступ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для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Около 200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свалок ликвидирован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продолжают избавляться от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свалок. С начала года городскими службами ликвидировано 197 мест незаконного сброса мусора - вывезено 13 тысяч кубометров твердых бытовых отходов.

Как отмечают в отделе мониторинга санитарного состояния МКУ “Управление мониторинга город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чаще всего свалки регистрируются на пустырях, в районах частной жилой застройки, СНТ, вблизи рек во время обследования территорий сотрудниками учреждения, а также сигналы о незаконном складировании мусора поступают от неравнодушных горожан. Борьба с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ми свалками ведется ежедневно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техники, а также при помощи ручного труда.

Так, сегодня была устранена свалка в районе перекрестка улиц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и Медицинской. Сообщение о ней поступило через портал Сахалин.Онлайн.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обследования территории были запланированы и проведены работы по ее ликвидации - объем вывезенных отходов составил 180 кубических метров.

Администрац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зывает жителей города проявлять гражданск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не допускать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ого сброса отходов и сообщать о фактах их обнаружения в департамент город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о телефону: 300-461 (доб. 3, 7, 10). Также это можно сделать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Сахалин.Онлайн с прикреплением фотографий.

Мероприятия по санитарному содержанию городских улиц, скверов,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 одно из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еятель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находятся на контроле мэра Сергея Надсадина. Улучшение эк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в приоритете у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 его инициатив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силены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меры, включая активное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жителей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воевременного оформления договоров на вывоз ТКО. Эта работа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ческ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 성황리에 마무리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 및 수상자 초청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한 재외동포 문학상은 한글 문학 창작을 통해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고취하고, 재외동포와 우리 국민들 간의 문화적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공모전이다.

금년에는 총 61개국 965명이 2,467편을 접수해, 응모자가 전년도 대비 91%가 증가하며 사상 최대의 참가율을 보였다.

이번 시상식에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시·단편소설·수필 3개 부문, 총 12명의 수상자가 참석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수상자 전원을 초청해 국내 문인들과의 교류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8일 수상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수상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협 청장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수상자 전원을 한자리에 모시고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작품활동을 통해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과의 유대를 계속 이어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19일 서울 종로 교원투어 콘서트홀에서 열렸으며,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이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변철환 차장은 "재외동포 작가의 글들이 지구 곳곳에서 한민족의 정신을 이어가고, 세계 속의 한국 문학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며, "재외동포 문학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으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창작의 영감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상자들은 시 부문 대상 수상자 박태인, 단편소설 부문 대상 수상자 김혜진을 비롯해 모두 뜻깊은 고국 초청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특히 수필 부문 대상 수상자 김지현은 "낯선 땅에서 살아오며 목소리를 잃고 존재를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공감을 주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전했다.

시상식 후 윤소라 성우의 '수상작 낭독회'에 이어, 우한용 작가의 특강, 구효서·박상우 작가와 수상자들 간 '작가와의 대화'가 이어져, 재외동포 문학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강을 진행한 우한용 작가는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을 설명하며, 다중적 주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했다.

작가와의 대화에 참여한 구효서 작가는 재외동포를 소재로 한 소설 ≪랩소디 인 베를린≫과 언어학적 관점에서 디아스포라를 탐구한 작품 ≪동주≫를 소개했다. 박상우 작가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집필 경험을 회고하며, "우리의 언어를 문학으로 승화하는 일이야말로 한국어를 보존하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해, 재외동포 문학이 한국어와 한국 문학에 기여하는 바를 깊이 되새기게 했다.

이와 더불어, 첫째 날과 셋째 날에는 서울도서관 등에서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을 소개하는 연계행사를 개최하고, 윤동주 문학관, 남산도서관을 방문하는 등 재외동포 작가들이 모국의 문화와 문학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번 문학상 초청행사를 통해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모국과 연결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품집 『2025 재외동포 문학의 창』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디오북은 서울도서관 및 남산도서관 내 비치된 다운로드 서비스 안내문, 그리고 다운로드 사이트(buly.kr/6ii8yAD)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시상식 및 작가와의 대화 영상은 재외동포청 유튜브(youtube.com/@OKAKOREA)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펜으로 독립을 썼다"… 고려인 언론의 항일정신 재조명

'제2회 홍범도아카데미 포럼' 국회서 개최

(서울=연합뉴스) 해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펜으로 싸운 고려인 언론인들의 항일정신을 조명하는 학술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박홍근 국회의원)와 대한고려인협회(회장 정영순)가 공동 주최하고 홍범도 아카데미가 주관한 '제2회 홍범도아카데미 포럼'이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포럼 주제는 '독립운동가 출신 고려인 언론인들-러시아 연해주의 '선봉'에서 카자흐스탄의 '레닌기치', 그리고 오늘날 '고려일보'로 이어진 언론의 역사'다. 참가자들은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언론 활동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고려인 언론인들의 정신과 언론사적 의미를 되짚었다.

주제 강연은 러시아어권 고려인 연구자 신 드미트리 블라디미로비치가 맡았다. 그는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한인 포털 아리랑.루(Arirang.ru)와 고려사람(Koryo-saram) 대표로, '소비에트 고려인-사회주의 노동 영웅들', '소비에트 고려인-위대한 조국 전쟁의 전선에서' 등 저서를 통해 고려인의 역사와 공헌을 꾸준히 연구해 온 학자다.

신 연구자는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을 기념해 펴낸 저서를 토대로 "1920년대 러시아 연해주에서 '선봉'이 창간돼 1937년 강제 이주 이후 카자흐스탄의 '레닌 기치'를 거쳐, 오늘날 '고려일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와 직원 22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이 중 10명만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레닌 기치' 기자들은 단순한 언론인이 아니라 조국의 독립과 사회적 각성을 위해 싸운 '펜의 혁명가'였다"며 "고려인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민족의식과 저항정신을 지켜낸 정신적 요새였다"고 강조했다.

'제2회 홍범도아카데미 포럼'
(서울=연합뉴스)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홍범도아카데미 포럼'에 앞서 공동 주최자인 박홍근(왼쪽서 3번째)의원과 정영순(오른쪽서 3번째)대한고려인협회장이 강연자인 신 드미트리 블라디미로비치(왼쪽서 4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고려인협회 제공]

이어 "냉전과 분단의 영향으로 사회주의권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이 오랫동안 조명받지 못했으며, 참여정부 시기 전향적 정책 덕분에 뒤늦게 10명이 서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병률 홍범도아카데미 원장(한국외대 명예교수)은 "남북 분단과 냉전으로 인해 구소련 지역 항일운동가들이 제대로 발굴되지 못했다"며 "이번 포럼이 고려인 독립운동가들의 재조명과 서훈 확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은 "고려인 사회는 단순한 이주민 공동체가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의 일부로, 독립운동의 맥을 이어온 공동체"라며 "이들의 업적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일은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롭게 알려진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조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고려인 독립운동사 연구를 학문적으로 확장하고, 한국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학계의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홍범도아카데미는 향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미발굴 고려인 항일운동가들에 대한 조사와 사료 정리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Более 60 семей планируется переселить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е до конца 2025 год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двухчасовую встречу с жителями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дал ответы более чем на 40 вопросов, волнующих жителей. Самой актуальной для тымовчан темой стало аварийное жилье.

Пенсионерка из Кировского рассказала губернатору, в каких условиях она сейчас проживает.

— Вода — в колонке, туалет — ведро, потолок обвис. Когда оценщик зашел осмотреть мой дом, он спросил: как вы здесь живете?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На встрече женщине предложили жилье в новых трехквартирных домах на улице Лиственничной в райцентре.

— Идите прямо сейчас смотреть квартиру. Если понравится — пакуйте вещи и переезжайте. Я не шучу,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Из-за ошибки прошл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е не проводили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Квартиры есть, но документы правильно не оформили. Это одна из причин, почему с поста ушел мэр. Когда я приехал на Сахалин в 2018 году, увидел одну из главных проблем — аварийное жилье. Миллион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был непригоден для проживания. Я поднял этот вопрос на встрече с Президентом. Нас услышали, выделил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Активно начали признавать дома аварийными и строить новые. Тысячи семей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отметили новоселье. И мы, безусловно, эту программу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Глава района Юрий Болдов добавил, что до конца 2025 года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олжны переехать 60 семей. Всего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непригодного жилфонда сегодня готово 77 квартир.

Многодетная семья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несколько лет ждет решения квартирного вопроса. Подходящей по площади квартиры в новостройках не нашлось, поэтому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рассмотреть вторичный рынок.

— Мы нашли прекрасный вариант, все оформили, н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говорит, что денег нет. У нас на руках решение суда. Сейчас ютимся в арендной квартире, где у детей нет своей комнаты, — обратилась к главе региона жительница Тымовского.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муниципалитету выделят субсидию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 феврале 2026 года семья должна отметить новоселье.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Восход поделилась, что с помощью материнского капитала приобрела дом. Рядом протекает река, и во время паводков вода подходит очень близко.

Глава района пояснил, что уже готов проект по берегоукреплению. Работы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за счет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 Только не провороньте весну, чтобы дом мы не потеряли,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Круг вопросов затронул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е хозяйство. Жители дома на улице Криворучко, 23 пожаловались на холод в квартирах. Руководитель МУП «Тепловик» сообщил, что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стави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тепловой насос, установить его планировалось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 На дворе минус 10 градусов. Устанавливайте насос. Если работа не будет сделана, я распоряжусь, чтобы вас убрали. Черствости и безразличия к проблемам людей я не потерплю, — 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Жители Тымовского и Воскресеновки попросили навести порядок в подвалах. По ряду адресов регулярно происходит подтопление стоками. Губернатор отметил: мэр должен разобраться с проблемными подвалами в ближайшие месяцы, не дожидаясь капремонта коммуникаций,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Жители арендных домов в райцентре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на плохое качество воды. Глава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ответил,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заменили 2,4 километра магистральных сетей водоснабжения. Установили фильтры, сейчас проводится пусконаладка оборудования. К концу года из кранов в домах тымовчан должна пойти чистая вод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прозвучал также вопрос из сфер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ама ребенка с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поделилась, что они испытают трудности с получением инсулина.

— Я все понимаю: санкции, препарат не наш. Но другой инсулин просто не подходит. Нам говорят: предоставьте справку. Для этого я должна лечь с ребенком в больницу. А у меня еще двое младших, — рассказала женщина.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министр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у Кузнецову найти решение на месте.

— Никаких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не надо. Сейчас маме предоставим четыре упаковки препарата. И в дальнейшем семья будет обеспечена инсулином по решению врачебной комиссии, — отв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вопрос льготного лекарстве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находится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Предпочтение отдается отечественным препаратам, так как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е страны перестали поставлять лекарства в Россию. В ситуациях, когда пациенту требуются определенные медикаменты, принимаются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решения.

На встрече губернатор разобрал также ряд частных обращений тымовчан. Так, школьный учитель рассказала, что трое ребят прошли отбор на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ую конференцию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Она сопровождает талантливых школьников, но командировку оплачивать отказываются. По вопросу было принято положи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 на этой неделе педагог сдаст документы и получит средства.

А сирота попросила обменять квартиру, которую она получила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на жилье в Тымовском. Обращение оперативно взяли в работу. Другому жителю помогли оформить прописку. Этот вопрос он не мог решить три года из-за ошибки в документах при расселении аварийного жилфонда.

По всем обращениям, поступившим от жителей,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ал конкретные поручения. Они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на контроле до полного исполнен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Главное условие — путешествие должно быть без использования моторной техники, кроме пути до начала маршрута.

사할린주, 주말 동안 약 550건의 교통 위반 사례 적발

최근, 사할린 교통 경찰은 교통 규정을 위반한 545명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92명을 구금했다.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사할린과 쿠릴 열도 지역에서 음주 운전으로 37명이 운전 면허가 정지됐고, 55명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교통 감찰국의 홍보실에 따르면, 교통 경찰관들이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1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금요일과 주말 동안 제때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55건의 행정 사건이 처리됐고, 40대의 차량이 견인됐다. 또한, 6명은 중앙선 침범으로, 71명은 과도한 창문 선팅으로 벌금을 물었다.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15명도 벌금을 받았고, 10명은 결함이 있는 차량을 운전했다. 4명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았고, 17명은 카시트 없이 어린이를 태우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한, 4명은 불법 주차로 벌금을 받았고, 3일간 보행자 12명이 처벌을 받았다.

Около 550 нарушений пресек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выходные

За трое суток сотрудники ДПС выписали штрафы 545 нарушителям правил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а еще 92 человека задержали.

С 21 по 23 ноябр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от управления транспортом отстранили 37 пьяных водителей, еще 55 островитян не имели права управлять автомобилем. Также инспекторы оформили протокол одной аварии с пострадавшим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й Госавтоинспекции.

В пятницу и за выходные составили 55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дел на водителей, которые не заплатили штрафы вовремя. На штрафстоянку отогнали 40 машин. Кроме того, шестерых оштрафовали за выезд на «встречку» и 71 человека — за слишком плотную «тонировку» на окнах.

15 водителей на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также получили штрафы, еще десять человек управляли неисправными автомобилями. Четверо не пропустили пешеходов на переходе, 17 сахалинцев перевозили детей без специальных кресел и не пристегнулись. Кроме того, четыре человека неправильно припарковались, за что также получили штрафы. За три дня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привлекли 12 пешеходов.

러시아, 인터넷 쇼핑몰 등록부 도입 추진

사이버 사기 근절을 위해 러시아가 공식 인터넷 쇼핑몰 링크 통합 등록부를 만들 예정이라고, 러시아 노워스찌 통신사가 전했다.

통신사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해당 안건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통합 링크 등록부 도입을 확정했다.

안건 검토 작업은 러시아 디지털 개발부, 내무부, 재무부, 연방세무청, 연방통신감독청이 검찰청과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마감 시한은 2026년 3분기이다.

В России хотят создать реестр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ов

В России могут создать единый реестр официальных ссылок на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 в целях борьбы с мошенниками. Об этом пишет РИА «Новости».

Как отмечает агентств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заняться рассмотрением вопроса. Кабмин утвердил введение единого реестра ссылок в рамках мер борьбы с киберпреступностью.

Проработкой идеи займутся Минцифры РФ, МВД, Минфин, ФНС, Роскомнадзор пр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Генпрокуратурой и Банком России. Крайний срок — III квартал 2026 года.

교육과학부, 새로운 고등 교육 시스템의 학업 기간 조정, 4년에서 6년

주요 대학들은 2026~2027년에 새로운 고등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새 고등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할 때 학업 기간은 교육 과정 숙달에 필요한 시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러시아 교육과학부 공보실에서 밝혔다고 노워스찌 통신사가 전했다.

의사와 교사의 교육 기간은 5년이 될 것이다. 복잡하고 과학 집약적인 분야의 전문가는 6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일부 교육 과정은 더 짧을 것이다. 예를 들어, 관광 및 접대 산업 분야의 전문가는 4년 동안 교육을 받을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간은 경제적 수요, 기초 교육 표준 및 학생들의 관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Минобрнауки: срок обучения по новой систем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оставит от 4 до 6 лет

Ведущие вузы начнут переход на новую систему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2026–2027 годах.

Срок обучения при переходе на новую систему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от времени, необходимого на освоение программ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обрнауки РФ, пишет РИА «Новости».

Срок обучения врачей и учителей составит пять лет.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сложным и наукоемким программам будут готовить шесть лет.

Ряд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будет короче. Например, специалисты сферы туризма и индустри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будут обучаться четыре года.

Как отмет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различная длительность программ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зволит найти баланс между запросами экономики, стандартами фундамент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интересами студентов.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RADIX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대한민국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사할린동포회는 전학문 박사님께서 2025년 11월 26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음을 깊은 슬픔으로 부고합니다. 아울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고인은 1936년 일제강점기 남부 사할린에서 출생했으며, 1957년에 사할린사범학교 조선과를, 1962년에 극동국립종합대학(블라디보스토크) 토양-생물학과를 졸업한후 소련 과학아카데미 소속 과학연구소에 취직했고, 1967년에 레닌그라드종합대학 준박사 학위 취득, 1981년에는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후 과학연구 공로로 소련 최고소베트 지령 공로훈장, 원로훈장 수상, 중국 사막화 방지공법 개발 공로로 국제평화상 및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거듭 전학문 박사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김포시 통진 사할린동포회
회원 일동의 명의로 회장 최정순

Приносим глубочайш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нашей коллеге Ким Раисе в связи кончиной её сестры Ким Буе Чен.

Наша организация НКО "АСК" скорбит вместе с вами в этот тяжёлый момент.

사할린한인연합회 김 라이사 사무국장의 언니 김 부에 천 씨가 79세를 일기로 대한민국 김포에서 별세하였음을 부고합니다. 아울러 비애에 젖은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할린한인연합회 회원 일동

새고려신문 애독자이며 한민족지에 많은 글을 투고하신 전학문 박사님께서 한국에서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받은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полугодие**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윅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